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됐던 외규장각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后高禮都監儀軌)』 하권. 영조 35년(1759) 6월에 있었던 영조의 정순왕후 김씨의 혼례 과정을 기록한 의궤다. 주작기와 황룡기 행렬이 보인다. 작은 사진은 『정종 시호도감의궤(定宗 禮號都監儀軌)』(1681년)와 『헌종대왕빈전혼전도감의궤(憲宗大王殯殿魂殿監儀軌)』(1849년) 중권 표지. 비단 장정에 고급스러운 낫쇠문림이 눈에 띈다.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OZ502편에서 하역되고 있는 외규장각 도서(왼쪽부터). 김도훈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돌아온 ‘조선의 보물’ 우리 뜻대로 활용할 수 있나

외규장각 도서 귀환 학자 의견

‘조선왕조의 보물’ 외규장각 의궤(儀軌)가 마침내 돌아왔다. 프랑스에 약탈된 지 145년 만이다. 14일 외규장각 도서 중 1차로 75권이 돌아온 데 대해 국내 문화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기쁜 일이지만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빼앗겼던 우리 최고의 기록문화재를 되찾아 온 것 자체가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영구 반환이 아닌 transient(전문화재형)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 대중을 위한 전시는 물론 연구를 위한 열람, 영인본 출간 등 학술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랑스 측과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반환 도서를) 전자책과 인터넷 서비스 형태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예 경신의 환개는=이건무 용인대 문화대학원장(전 문화재청장)은 “서류상으로는 5년마다 대여 기간을 갱신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한국과 프랑스 양국 정상의 합

유일본 30권 정확한 수 아니다

국내본과 꼼꼼히 대조해 봐야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 문화재라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향후 양국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한 것이지 어떤 노력이든 “(반환 도서를) 전자책과 인터넷 서비스 형태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식 단국대 교수는 “5월 말까지 나 머지 외규장각 도서를 모두 돌려받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과거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도 처음에는 도서 전체를 돌려주겠

다고 했다가 이를 기뻐하는 한국 내 분위기가 보도되자 프랑스 내 여론이 급격히 돌아서 단 한 권 만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때문에 일대 형식이라도 일단 도서 전체를 돌려받아 실리를 챙긴 상태에서 추가 협상을 통해 영구반환을 얻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는=정부가 공식적으로 협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문식 교수는 “정부가 협정문을 공개해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엔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온 것은 박물관간의 교류 전시 성격”이라고 말했다. 외규장각 의궤 소유권을 프랑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도서를 우리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연구 목적의 열람, 지방 순회 전시 등도 일일이 프랑스 측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문제를 현재의 협정문 안 안에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틀 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새롭게 짜야 하는지도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영우 교수는 체계적인 연구를 강조했다. 그는 “돌아오는 도서 중 유일본(30권)이 정확히 몇 권인지도 아직 정확하지 않다. 후속 연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규장각 도서 중 국내 소장본과 제목은 같아도 쪽 수가 크게 차이나 사실상 다른 책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대조가 필요하다

한 교수는 “국내 의궤본은 서울대 규장각 등에 소장돼 있어 교육부가 관할하는 반면 이번엔 돌아온 도서는 문화부 소관인 만큼 앞으로 학술연구를 할 때 부처간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한국문화재 14만 점=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계기로 해외 한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 한국문화재는 14만 점에 이른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또 합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도 적지 않다. 문제는 불법 유출된 문화재다. 현재 어떤 문화재가 불법 반출된 것인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불법 유출이 확인된 문화재는 일본 공내청

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에도 의궤 말고 조선시대 왕실 족보인 ‘선원계보기략’ 등 우리 문화재가 더 있지만 이번 반환 협상에 빠졌다. 문화재청은 불법 반출된 해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협정문에 대한 환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신준봉 기자 inform@joongang.co.kr

◆외규장각(外庫藏閣) 도서=조선 왕실의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돼 있던 1007종 5067책의 서적과 문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340권을 약탈했고, 나머지는 방화로 소실됐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의궤다. 종이부터 글씨까지 최고급을 쓴 어람용(御覽用·왕이 보는 것)이다.



대지진에 길 막힌 일본 공내청 조선왕실의궤 반환

자민당내 반발기류, 여야는 대립

원전 사고까지 겹쳐 비준 늦어져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간에 맺은 ‘한·일 도서협정’은 조선왕실의궤 등 일 공내청에 소장돼 있는 1205권의 약탈 도서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선왕실의궤가 167권, 대전회통(大典會通)이 1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가 99권, 기타 규장각 도서가 938권이다. 하지만 협정 체결 후 반년 가까이 ‘도서협정’은 일본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한 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민당 내에 도서 반환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데다 여·야 대립이 격해지면서 도서협정 비준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을 때 프랑스군이 340권을 약탈했고, 나머지는 방화로 소실됐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의궤다. 종이부터 글씨까지 최고급을 쓴 어람용(御覽用·왕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일 정부는 다음달 22일부터 이를 간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대령

령에게 도서를 반환한다는 목표 아래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 외무성은 한·중·일 정상회담 조율을 위해 마쓰모토 다카야키(松本剛明) 외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다음달 초 혹은 중순 초까지 의회에서 협정을 비준 받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5일 개최되는 중의원 외무위원회 자리에서 자민당 측에 ‘도서협정’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민당 일부에선 “식민지 시대애 역으로 일본이 한국에 가져 간 도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기로 의무성이 약속해 놓고 아직 보고를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비준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취지 설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일단 심의할 법안이나 조약의 취지 설명이 있을 후 심의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있다.

주일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 의회의 비준 절차만 끝나면 운반과 관련된 실무 작업이 곧 남게 된다. 이후 거의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팝업

미술계 뜨는 별 열하나 평창동에 모였다

회화·조각·영상 등 각 분야

주목받는 젊은 작가 11인 전

회화·조각·영상 등 분야별로 주목 받는 젊은 미술작가 11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호평 받는 작가들이다.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갤러리에서 5월 1일까지 열리는 ‘기억의 미래를 찾는 사람들’이다. 각각 연속화랑이 다른 스타작가들이라 미술애호가들로서는 최근 인기를 끌릴 수 있는 기회다.

앤드러마의 생동하는 꿈틀거림을 동물적 이미지로 표현해내 생의 활력과 쇠락을 담아내는 ‘앤드러마’ 작가 김지연, 연필 드로잉과 채색, 바니쉬(광택제)로 감을 쌓아 올리며 시간의 누적을 표현하는 손은희, 향으로 일일이 한지를 태워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 조형



홍정택 작가의 '미스터 론리'. 80 X 80cm.

적 신비감을 자아내는 박지현 등이다. 사물을 기념비적으로 확대하고 극사실적이 한지를 태워 만든 작은 구멍을 통해 조형

통해 그로테스크해진 ‘선인장’ 연작을 내놓는다. 이동기와 이동재, 홍정택은 각각 소비자의 미디어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는 작가다. 홍정택은 좌우대칭이거나 화려한 패턴 이미지를 통해, 화려한 시각 이미지를 강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현대사회를 은유한다.

신미경은 물에 닿으면 녹아버리는 비누를 이용한 조각을 선보인다. 박물관 컬렉션 느낌의 과거 유물을 정교하게 비누로 복제하면서, 예술작품을 재해석하는 재미가 있다. 역시 과거 대가들의 유명 회화들을 LED 디스플레이 안에 디지털 이미지로 새롭게 재현하면서 예곡·변형하는 이이남은 프랑스 파리로 노트르담성당 이미지와 한국화가 소치(小庵) 허련(1808~93)의 산수화를 대비시켰다. 02-720-1020. 양정희 기자 shyang@joongang.co.kr

“이제는 재난 보도 전문가 육성 필요하다”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

이민규 교수 “평화 저널리즘 중요”

일본 대지진 이후 재난보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국내에서도 재난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는 재난보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민규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집·회장 박보균) 주최로 경주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재난보도에 대하여’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협사회’를 인용했다. 그는 “요즘 세상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잘 살게 됐지만 그만큼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위험사회로 변하고 있다”며 “이번 현실에서는 화합을 유도하는 평화 저널리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평화 저널리즘의 대표 사례로 일본 NHK 방송의 동일본 대지진 보도 태도를 들었다. 그는 “일본 언론이 보여준 침착함과 한국 언론의 흥분이 대비됐다”며 “NHK의 재해보도에는 철저한 정보 제공과 복구 보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주=류·사진 남정호 국제선임기자 namjh@joongang.co.kr



14일 경주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집) 주최 ‘재난보도에 대하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편집 회장인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 배재근 숙명여대 교수, 이민규 중앙대 교수, 후지모토 도시카즈 경희대 초빙교수,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위원

“NHK는 불필요한 자국민이나 공포를 유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재난을 사건기보다 다룬다. 전문가 시각으로 보도하도록 패러디를 바꾸고 재난보도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지모토 도시카즈 경희대 초빙교수는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들이 호들갑을 떨 경우 시민들이 더 불안해진다”며 “NHK 아나운서들이 차분할 수 있던 건 재난을 대비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끊임

없이 훈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편집 회장인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은 “이번 일본 언론의 재난보도 방식과 자제가 한국 언론에게 감명하게 다가왔다”며 “유족 인터뷰를 일체 방송하지 않고 시신 수습 장면도 멀리서 찍는 일본 언론의 절제를 보면 서 선정성 위주의 한국 언론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류·사진 남정호 국제선임기자 namjh@joongang.co.kr

광교안내
02)754-5566
Fax. 754-3366

공고분실

본 양계양식 인턴관리직 경제자
분류자구 내 중구 영종하늘도시
우미린 1차 105동 1801호 김현미

부동산

빌딩-상가

오피스텔 빌딩
월순수입1,700만
천안-현금 16억-
상업지역 대로변 10층
011-314-3000

대지-임야

★양평 토지★
대 4757㎡ 임야 9224㎡
연수원·동호인 주택, 남양
전원주택지(A급, 토목공사 완료)
현시제21역(강남에서 30분 거리)
금액 11억 5천
010-4818-5070

금융

월입 1010-2788-4272

**원발성 불면증 임상연구
지원자 모집**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은 원발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피험자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인 원발성 불면증으로 진단 받은 분(수면장애가 기면증, 호흡관련 수면장애, 주요 우울장애, 병발한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의료진의 상담 및 진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임 여성의 경우 피임에 동의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방문 시 진료비, 검사비 및 교통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외 추가적인 선정/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상연구약물 무상 지원

기타사항

- 설문지 군에서는 약 8회의 방문과 1회의 추적방문 또는 전화화,
- 설문지와 수면다원검사 군에서는 약 10회의 방문(수면다원검사를 위한 6회의 1박2일 방문 포함)과 1회의 추적방문 또는 전화화 받게 됩니다.

※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참여 병원 및 연구팀 ◆

설문지와 수면다원검사군 : 건국대병원, 노원유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설문지군 : 가천길병원, 고대인양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락처: 콜센터 010-8010-0637

**삼진제약
게보린**

요즘처럼 세계 곳곳에서 힘이 들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을 때, 게보린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걱정과 근심거려가 없게, 머리가 맑아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대한민국 화이팅을 위해!

**약(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의약품 오남용 퇴치, 게보린이 함께 합니다.**

맞다! 게보린

맞다! 게보린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시대별로 부응하는 사운드가 따로 있어 요. 리마스터링 CD가 현대적 사운드라면, 오리지널 CD는 발매 당시의 소리가 풍겼던 향수를 떠올리게 하죠. 비교해서 들으면 좋 을 거예요.”

대중가요엔 유행기현이 있다. 만인이 따라 부 르던 노래도 몇 년이면 시들해진다. 드물긴 해도 수십 년간 사랑 받는 곡도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로 한정판 으로 판매된다.

그가 최근 20주년 기념 박스 앨범을 냈다. 1991년 데뷔 이후 발매한 정규 앨범 6장과 비정규 앨범 2장이 담겼다. 발매 당시 사운 드가 곱몰대는 오리지널 CD에다 리마스터 링(Remastering·음향 재조정) CD까지 추 가됐다. 비틀즈 앨범을 리마스터링 했던 미 국 유명 엔지니어 테드 쟈슨이 참여했다. 모 두 CD 19장이 담겼는데, 3000세